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한우산업 경쟁력 키우기

“함평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필요”

함평군, 민주당에 협조 요청 건의문 전달

친환경 축사시설 개·보수 등 시책 추진도

함평군이 전남 서남부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은 민주당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안소 수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군은 7일 “최근 서남부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한우산업과 관련 건의문을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낙연 국회의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함평은 전남도내 대표적인 한우 생산 지체로, 인구(3만5600명)보다 한우 사육두수(4만1167두)가 많은 한우산업특구다.

군은 한우산업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조사업 재배면적 확대, 친환경 축사시설 개·보수, 고급 육생장려금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쇠고기 수입 증가,

한우가격 하락, 천정부지 사료 가격 등으로 인해 지역 내 한우 농가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건의문을 통해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사육농가를 위해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가축사료 운반 거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축산특화농공단지로 지정된 함평군 학교면에 도축·정제·가공·유통기능을 갖춘 전남 서남부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우의 군납 물량을 확

대, 할인판매 행사 등 소비확대 정책도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함평을 방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안소 수매·사료값 인하·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FTA직불금 인상 등 지역 축산농가의 건의와 관련 “국회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한우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봉택 함평군 축수산과장은 “축산업은 농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라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다”며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나주 주말상설무대 ‘관’ 공연 지난 5일부터 이달 한 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나주시 금남동 야외공연장, 영산포 흥어의거리 야외무대에서 주말상설공연 ‘관’이 열린다. 시립국악단, 합창단, 하늘다래예술단, 중국기예단, 남미와 멕시코 음악공연단, 태극 전통춤, 전라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비보이, 협합, 팝핀, 매직 마술쇼, 가요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된다. (나주시 제공)

내년 6월 완공 산포 신도산단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나주시 “광주권 RDF 반입 사실무근”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나주시는 7일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신도산단에 들어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광주권 RDF(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가 반입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최근 내년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설에 광주권 RDF 반입한다는 소문이 돌자 시가 공식부인한 것이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신도산단이 위치한 인근지역을 중

심으로 광주권 RDF 반입설이 근거없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검토하거나 논의한적도 없는 루머”라며 “만약 광주권 RDF 반입이나 다이옥신 발생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조치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95억원을 들여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단순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던 생활쓰레기 가운데 다이옥신

을 발생시키는 PVC, 고철, 유리, 고무류 등은 재질별로 자원화하고, 종이 같은 쓰레기는 RDF로 만들어 에너지화하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과 함께 들어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9년 3월에 자원순환형 에너지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에서 생산된 RDF를 향후 5년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남도, 일선시·군 정보담당 공무원 대상

구례서 ‘정보화 연찬회’ 갖는다

전남도는 7일 “정보기술 적응 능력 배양과 ‘정부3.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1일 구례 지리산한화리조트에서 2013년도 정보화 연찬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남도와 도내 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실시했던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와 우수 시 등 4개 시군에서 추진한 정보화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특별 강사를 초청해 ‘지방3.0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전남도의 공공 데이터 개방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방형남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전남도는 정부3.0 정책에 공무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정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장흥군, 출산 장려 특수시책 호응

전국 최초 영유아 A형 감염 3종 접종비용 지원

장흥군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관련 특수시책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군은 7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수의자(영유아)들에게 부담을 안긴 기타예방접종인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A형 감염 3종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 관내에 거주하

며, 주소를 둔 영유아로 폐렴구균은 생후 15개월 이하(1회당 12만원),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6개월 이하(1회당 8만원), A형 감염은 생후 18개월 이하(1회당 3만원)를 대상으로 분인이 5000원(1회당)만 부담하고 모든 비용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말까지 관내 25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타예방접종 건수는 총 1290회에 지원 예

산은 1억1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젊은층의 귀농 및 귀촌이 늘면서 이번 시책이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추후 출산 장려를 위한 다른 시책들도 내놓을 예정이다.

장흥지역 영유아들에 대한 기타예방접종은 장흥병원,성경의원, 김이비인후과, 한미음내과 등 4곳에서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땅끝해남 물들이는 풍성한 문화행사들

고산문화축전·미항사 패물재 등 즐이여

10월이 해남군의 가을 문화 행사로 물들이고 있다.

먼저 오는 11일과 12일 개최되는 제13회 고산문화축전을 비롯해 미항사 패물재와 김남주 문학제가 연이어 개최된다.

고산 윤선도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고산문화축전에서는 고산시가낭송대회와 고산문학세미나, 고산문학대상 시상, 청소년 시, 서화 백일장 등이 이어진다.

세미나에서는 우리 시와 가락이라는 주제로 신경림 시인이 문학 강연을 하며 한국 선시조와 우리의 가락을 주제로 토론이 나간다.

올해로 14번째로 개최되는 패물재는 19일 달마산 아름다운 절미항사에서 보물1342호로 지정된 패물탱화를 걸고 만물공양, 만 등공양이 이어진다.

패물재와 함께 가을밤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회도 마련되는데, 미항사군고단의 군고판국과 강강술래, 용출다리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공연과 가수 김원중, 인도음악가 박양희씨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고 김남주 시인을 기리는 김남주 문학제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김남주 생가에서 열린다. 포엠콘서트, 작가와와 대화, 시인 생가길 걷기 행사 등을 통해 해남을 찾은 문화가와 관광객들에게 향토색 짙은 문화 향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26일 해남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되는 초청강연회에는 전 서울시 교육감 박노현씨가 강연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주민 1만6810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담양군 보건소

담양군 보건소는 7일 “오는 10월부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1만6810명에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3급)·국가유공자 중 만 50세 이상 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위험이 높은 닭과 오리 사육 농가도 올해 무료접종대상자로 추가됐다.

유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중 만3세 이상의 희망 주민으로 약품 소진 시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군 보건소는 예방접종대상자들이 한달 집중패 불면이 초래될 것을 대비해 마을별, 일차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지정해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보건지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접종 장소로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